

[종합]

新年辭

2007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에는 누구나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한해의 결의를 다진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다.

대통령의 말에, 여당의 무력함에, 야당의 안이함에 국민은 한 가닥 희망마저 접은 지 오래다. 자고 나면 치솟는 수도권 부동산값에 지방과 서민은 깊은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개를 떨어뜨렸다. 그래도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다. 서구에서 수백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반세기 만에 따라잡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국민의 자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참되고 실속있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이야말로 이념적 갈등 때문에 사분오열된 국론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대한민국(號)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 나아가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의 작은 소망이 이뤄지는 한해가 돼야 한다. 먹고사는 일만큼 소박하고도 절실한 바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 논리에 밀려 경제회생의 의지가 퇴색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정치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

명분에 사로잡혀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나 벌이는 구태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 올해는 광주·전남에 성장동력을 확충해 생산도시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환서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하자.

광주일보의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에 속명처럼 따라붙은 '낙후'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가 왕성하게 이뤄지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터에서 맘껏 일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될 것인지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제는 명분보다 실리(實利)가 우선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는 지역감정과 지역할거주의, 패거리 정치 등 지난 반세기의 정치 고질병을 떨쳐버려야 할 때가 왔다. 정치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새해에는 쓸데없는 이념 갈등을 끝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는 경제가 살아나 살림살이가 조금이나

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실부른 정치놀음에 경제가 휘둘리면 국민의 삶만 파탄날 뿐이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파탄된다면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광주·전남지역도 이제는 소외와 공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념이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선진국 향해 힘차게 전진”

노대통령 신년 메시지

올해가 편안하고 순조로운 한해가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책이 착실히 추진되면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힘을 모읍시다.

교육문제는 아직도 힘들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대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환율 문제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부동산, 금융의 위기요인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열고 선진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어느 한해 시끄럽고 힘들지 않았던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짜증스럽기만해도, 남들이 평가하는 민주주의의 수준은 아시아 최고 수준에 올라서 있습니다.

2004년 2천억달러를 넘어선 수출이 지난해에는 3천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환율 덕분에기는 하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문턱 앞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잡고 앞지르기 위한 기술혁신, 인재양성, 시장개척, 정부혁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동반성장, 균형발전 전략도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고공없는 성장, 부동산, 교육문제도 민생이 어렵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산업 육성, 그리고 비전 2030정

각계 新年辭

경제살리기·문화수도 조성 올인할 터 박 광 태 광주시장.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소원 성취하시고 축복받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F-1 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 제정 최선 박 준 영 전남지사.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전남의 운명을 바꾼다는 신념을 갖고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그 발걸음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전국체전 성공리 치러 광주위상 높이겠다 강 박 원 광주시의회의장. 올해는 지역적으로 일등광주 건설의 비전 속에 경제살리기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1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범으로써 민주 선진도시로서 광주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의 한해'입니다.

동북아 발전의 중심축 성장 비전 제시 김 중 철 전남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新春文藝 당선작.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신안 인스빌아파트> ◇동화 바다에 간 시계 박월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동 2가 현대에코리파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鎭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자직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수진.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원임용고시의 모든것! 본 학원 출신 2007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광주지역 17명중 15명합격(4차합격자 기준). 관점없는 공부의 당비일 뿐입니다. 객내영고시학원 겨울방학특강. 무료공개설명회 1:1전문상담 환영 http://www.naeyoung.com